

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노숙인 등 10대 시책 중점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 및 돌봄공백에 적극 대응

광주광역시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대 복지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된다.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이 기존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기존 중위소득의 65%→150%) 적용해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금융재산기준이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

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의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긴급한 의료지원 등 위기사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정부의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과 동일하게 3월 말까지는 완화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적용된다. 최종중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기로 했다.

이 센터는 낮 시간에는 활동지원과 행동수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

침까지는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형을 도입해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꾸릴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병원 입원이나 애경사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말·휴일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종중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 외)은 올 1월부터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금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소득하위 70%)로 확대 적용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번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됐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

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2월에 개관한다.

또한 시는 어르신들의 정보접근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1335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빛고을50+센터 개관 등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빛고을50+센터는 일, 배움, 여가, 복지, 정보제공 등 장년층 지원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500여개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조성 ▲관련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4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28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되고 노숙인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된다.

서선욱기자

광주 동구,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생활체육 강화

장애인의 접근성 용이한 장소에 대한 운동환경 조성

광주 동구는 장애인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속 건강유지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등 대규모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 속, 집주위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대한 운동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적인 현실이다.

이에 구는 동구장애인복지관 앞에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5점을 설치했다. 또한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문화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동구다목적체육관에 파크골프장(9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운동기구를 보급해 장애



인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양성 및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장애인 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광양시, 방학 기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광양아이 키움밥상’으로 아이 결식 예방



광양시는 겨울방학 동안 광양아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광양아이

키움밥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아이 키움밥상’은 불가피하게

집에 혼자 있는 사각지대 아동 250여 명을 위한 긴급돌봄으로, 광양아이 키움센터에 개방해 키움밥상을 제공하고는 사업이다.

급식을 지원하는 광양아이키움센터는 광양시 5개소(청소년문화의집, 송보7차, 덕례수시아, 덕진광양의봄, 창덕1차), 중마동 4개소(농협문화센터, 성호2-1차, 송보5차, 송보6차), 광영동 1개소(브라운스톤가야)이다.

이중 중마동 농협문화센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며, 돌봄센터 재개원 시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